

# 도, 두리교사제 시범학교 성과 발표회

### 2020년부터 6곳 운영 중... 기초학습 보장·학습부진 예방 효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두리교사제 시범학교들의 성과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주 그랜드힐스틴 데이저스홀에서 '2021년 전라북도교육청 두리교사제 시범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 수업하는 1수업 2교사 모델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주덕일초·전주용의초·전주북초와 이리부송초·전주서원

초·점음북초 등 6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발표는 2020년부터 2년제 시범학교를 운영 중인 전주덕일초, 전주용의초, 전주북초 두리교사들이 맡았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전주북초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기초학습 보장 및 학습 부진 예방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혜련 교사는 "두 명의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에게 대한 피드백 시간이 증가하고, 수업중 즉시 지원함으로써 해당 차지에서 부진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협업 수업을 위해 수업연구, 코칭 방법, 부진학생 이해와 지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

행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주용의초 역시 두리교사와 담임교사가 수업을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개별지도 하니 수업하기 한결 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아영 교사는 "담임교사는 두리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때 좀 더 면밀하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내 수업에서 스스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아 다음 수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부진 학생들을 일대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학급 전체의 목표 도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덕일초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많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학

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점을 눈에 띄는 성과로 꼽았다. 이문희 교사는 "올해 2학년의 경우 학습 태도 및 학습방법을 익히는 1학년 때 원격 수업 및 부분 등교로 이전에 비해 신난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은데 두리교사제 시행 이전보다 수학 성적 향상됐다"면서 "수업 후 협의를 통한 수업 나눔으로 학생 반응을 공유하면서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와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리교사제의 취지와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학교 전체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워크숍이나 학년 시작 전 담임교사와 두리교사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장은성 기자

## 참신한 연구기획 발표 '우수상'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박현아·강지안 대학원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공모서 각각 우수상



박현아 박사과정



강지안 석사과정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현아(박사과정)·강지안(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최근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현대의'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신진학자 지원사업 연구기획안 공모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현아 대학원생은 신진연구자 및 박사과정 피칭세션에 참여해 '가상공간에도 계급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연구기획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부캐(부캐릭터) 현상을 가상공간으로 확대해 말티페르소나와 부르디

외의 문화취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참신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강지안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피칭세션에서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이 정음 청년의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청년의 정주의도를 높이는 요인 중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주목해 로컬 미디어 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기획안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박순희)는 지난 2019년부터 신진학자 및 박사, 석사과정이 참여하는 '연구기획안 피칭세션'을 마련, 미래 학문후속세대의 참신한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황호진 "학교 공간 혁신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할 것"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남원 용성중학교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를 통해 "임기 중 도내 전체 학교에 공간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혁신학교, 혁신+학교 중심으로 추진돼 온 학교공간혁신을 전체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

황 전 부교육감은 "그동안의 학교가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이유는 사각형 교실과 긴 복도가 학생들을 수용하고 통제하기 쉬운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과거 편입된 틀적인 봉쇄 중심의 학교를 넘어 학생들의 단순 참여가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 중심의 공간구성,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생활하는 학교를 설계하고 그 공간에서 높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성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아주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공간혁신 대상은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교의 문화와 자치활동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간혁신사업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 내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 전북교육청, 8일까지 접수... 초등 43명·중등 23명 등 총 70명 선발 예정

전북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 오는 8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공립유치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 연수와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2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교사 4명, 초등교사 43명, 중등교사 23명 등 총 70명이다. 지원자격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로 실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발 절차는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심사, 3차 학교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5일 연수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연수 대상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지평선중·고사학비리 교장이사장 복귀 성명 발표

전교조전북지부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평선중·고등학교 사학 비리 교장의 이사장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전국단위모집 대안결원 특성화학교인 지평선중·고가 신입생 선발에서 인위적으로 합격자를 비위치기 했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기자회견과 도교육청의 특정 감사,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교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며 갑질을 일삼고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는 등 학교 재단의 여러 문제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시 이후 번에 걸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비

리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처벌, 임원승인 취소, 공익제보 교사 보호와 함께,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사립컨트롤타워 조직 등 구조적인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교장 파면, 교감 해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임원승인 취소작업 없이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두고 견제받지 않은 재단 이사회는 공익제보 교사들을 여러 차례 형사 고소하고 징계 협박했다. 특히 당시 파면 요구를 받았던 정모 교장은 아무 일 없이 정년퇴임했고, 이번에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

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신이 파면 요구를 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정모 교장이 재단 이사장 선 임된 것을 승인했다. 교육청의 임원승인 공문이 오자마자 재단은 11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를 이사장으로 옹립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결국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립학교의 비극을 지평선중·고에서 막아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앞으로 지평선중·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주시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며, "특히 공익제보 교사들에게 부당 징계 등 인신상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 등 취약한 위치로 내몰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멀티링구얼 스피치 콘테스트 성료

전주대학교는 지난 1일 제4회 인문대학장배 멀티링구얼(multilingual, 多言語) 스피치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멀티링구얼 스피치 대회'는 영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가며 발표하는 대회로,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다언어 말하기 대회다. 2017년부터 실시해 온 이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위드코로나에 따라 제4회 대회를 열었다. 본선에서는 총 8팀이 일본어 및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외국어 말하기 기량을 뽐냈다. '오징어 게임: 일본 작품의 표절?', '코로나 시대에 생겨난 신조어', '현실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대상을 수상한 구민경(일본어문과 3학년) 학생은 "이제 우리 한국도 다문화다언어 시대를 맞아 2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는 필수가 된 것 같다. 또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갖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며, "지금 일본 IT융합 전공을 병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강훈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다언어 습득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다언어·다문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16년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일본어·영어, 다언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